

지역 소식통

부안무빙 변산 비치 시네마 성황리 개최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2024 부안무빙 변산 비치 시네마가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3일 동안 '사랑'이라는 주제로 3편의 메인 영화가 무료로 상영됐으며 영화 '기러진 시간'·'그해 여름'·'파이란' 모두 높은 노을이 지는 낭만적인 변산해수욕장 해변 분위기와 어울려 영화에 깊게 몰입할 수 있었다.

영화 상영과 함께 이어진 '관객과의 대화'와 특별 상영된 '뽀로로 극장판 보물섬 대모험'·'반장선거'도 가족 단위 관광객과 영화 애호가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난 17일 변산해수욕장 위케이션센터에서 진행된 필름 토크는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박정민 배우,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 영화 명장면들을 살펴보는 일반 관객이 알기 힘든 영화의 뒷이야기를 관객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나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운영 마무리

고창군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이 지난 18일 40일간의 운영을 종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개장 이후 40일간 고창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2만 2000여명으로 작년대비 33%정도 줄었다.

연일 지속된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해 작년 대비 방문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정보를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향후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을 즐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주변정리를 완료하고 해수욕장 운영결과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시설 보수·화장 및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업장 · 영농현장 찾아 소통 강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 꽃정원 조성사업 현장 등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19일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등 고창군 주요 사업장과 수확철을 맞아 영농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심 군수는 첫 방문지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았다.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은 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창읍성 주변을 테마 체험·체육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재호 판소리공원, 판소리 명창거리, 민속마을 조성 등 2015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심 군수는 노동골 꽃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가을꽃 조성 등 사업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세계유산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군은 꽃정원 치유문화축제 시 나왔던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가을 꽃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침수피해 등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인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36억원)과 민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8억



심덕섭 고창군수가 19일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노동골 꽃정원 조성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과 수확철을 맞아 영농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원)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두 사업 모두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확철을 맞아 고수면 황금배 농장과 무장면 멜론 농가를 방문해 격려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고창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며, "고창 농산물의 명성을 유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21일 두 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고창군 유일의 유인도인 내죽도를 방문하여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91억원) 상황 점검 및 2030년 준공 예정인 노을대교와 연계한 내죽도 관광활용 방안 등에 논의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운영 철저 관리 당부

영상 간부회의 주재... 성과 홍보 · 지하 전기충전소 안전 강화 등 지시

이학수 정읍시장(사진)은 19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시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 부서의 중점사업, 각종 운영,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시정 운

영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시정 운영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을지훈련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안보와 비상 상황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을지훈련은 국가안보를 강화

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인 만큼,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 전기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하 전기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민 의견 시정 반영 위한 정책 제안 공모 실시

정읍시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참여 열린시정'이라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주민의 실생활 편익을 향상하고, 주민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최대 2건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단, 시상은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공모 주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개선 또는 시행해야 할 정책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년

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머물고 싶은 정읍을 위한 관광, 문화, 축제 활성화 △기타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등이다.

응모 방법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우편(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또는 팩스(063-539-6504)로 제출하거나 이메일(jseo214@korea.kr)로 전송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비상 대비태세 확립 '을지연습' 실시

정읍시

정읍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2024년 을지연습을 진행한다.

이번 연습은 공무원들의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 직제편성 훈련, 기관 소산 이동훈련, 전시 창설 기구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포함됐다.

또한, 전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시 예산편성 대책과 수돗물 오염 시 비상급수대책에 대한 토의도 이뤄진다.

21일에는 정읍교도소에서 정부 중요 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훈련이 실제 상황처럼 진행된다. 이 훈련에는 5개 기관·단체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9대와 드론 1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22일에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적 공습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경보발령, 주민대피, 차량 이동 통제, 군



경 합동통제소 설치,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센트럴카운티 아파트에서 적 공습 상황 대비 주민대피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실제 공습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모든 참가자들은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창군이 '2024년 을지연습'을 19~22일 3박4일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는 실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제훈련과 안보의식 고취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창군은 을지연습에 앞서 14일 오전 5시 30분 공무원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비상소집 명령 전달체계,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 비상소집 문자·전화 발송 장비의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최최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훈련과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전시창설기구 설치 및 운영 훈련 등을 실시해 전시전환체제를 숙달하고 전시 임무 숙지와 총무사태별 조치사항 등을 토의했다.



연습 2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해 흥덕배수지 등 등 테러위협에 대비해 전시 현안과제를 발표하고, 방사능구호소 테러 및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을지연습을 통해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상황 관리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며, 튼튼하고 빈틈 없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첫걸음

정읍시는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6일 관련 기관과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지난 5월 1일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사업은 '평생 사시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 실현(AIP, Aging In Place)'이라는 목표 아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진 의지가 높은 정읍시를 포함해 2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6일 열린 교육에는 '대상자 발굴 및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통합지원담당'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팀장·담당자 46명과 '연계서비스 제공과 사업 홍보 역할을 수행할 통합안내창구'인 사업부서·돌봄 수행기관의 관계자 36명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범사업의 비전과 목표, 주제별 추진체계 및 역할, 통합지원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등의 직무교육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의 보건·요양 관련 사업 및 시범사업에서 활용할 정보시스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